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피지 않도록 규칙을 세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차피 담배는 국민의 기호품이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입니다.
결국 나의 의견은 「규칙을 만들어 금지 하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도 절대로 타인을 위해 공공 장소에서는 피지 않습니다.
담배가 몸에 나쁜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인생은 자신이 하고싶은 것은 하면 사는 것입니다.
담배가 싫기때문에 담배의 광고도 TV에서 방영할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기분이 나쁜때는 나는 담배를 피면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역시 담배를 피는 친구도 같은 이유로 담배를 좋아합니다.
최근, 담배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죽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은 줄 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별한 규칙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워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정신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라고 생각합니다.